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

- 효에 바탕한 복수서사를 중심으로 -

강 중 임**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복수의 서사와 가려진 고뇌 |
| II. 복수의 의미와 당위성의 근거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부당행위에 대해 느끼는 복수 충동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며,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대표적인 인간 내면의 동기¹⁾이기도 하다.

복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다양한 문학 장르의 매력적인 소재로 기능하였다. <햄릿>은 물론이고 <천일야화>의 탄생 역시 배신에 대한 복수로부터 비롯된 것임도 잘 알고 있다. 복수의 테마는 신화의 시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부단히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쾌감 혹은 심리적 보상²⁾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 이 연구는 2018년 동국대학교 DG선진연구강화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1) 이성규, <인간은 왜 복수에 매달릴까>, <https://www.sciencetimes.co.kr>, (2017. 4.10)
- 2)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교의 데이비드 체스터 교수와 켄터키대학교의 네이선 드월 교수가 '성격과 사회심리학(Personality and Social Pshchology)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복수는 실행에 옮기건 아니면 상상하건 간에 둘

중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한층 더한 면이 있다.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접하다 보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이나 부당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마음과 표현들은 매우 두드러지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의로움을 기저로 하는 무협 장르의 다양한 콘텐츠에 내재된 일관된 심리는 정의 구현을 표방한 복수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로서의 복수와 등치해서 보기에는 중국인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복수 심리는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는 민족적 정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곧잘 쓰이는 ‘군자가 원수를 갚음에 있어서 십 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君子報仇, 十年不晚)’라는 속담이나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有仇不報非君子)’라는 말은 이러한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준다. 전자의 행간에 실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난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가 중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는 점에서 복수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라는 행위의 주체를 군자라고 한 점은 다소 의아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도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던 유가의 이념과 연관시켜 보면 수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행위를 군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통시기 중국에서 군자는 모든 이들의 본보기가 되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성인에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군자를 복수의 주체로 놓은 것도 모자라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질로서 복수를 언급하였다는 점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핵심으로 하는 仁을 군자의 최고 덕목으로 여겨왔던 전통적 관념에서는 원한에 대한 복수의 실행 여부가 군자의 자격조

다 모두 사람들에게 쾌감을 안겨주며, 사람들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함에도 복수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같은 글 참조)

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타당한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생 귀감으로 삼아 행할만한 덕목에 대한 말씀을 청하는 자공에게 ‘관용’을 들었던 공자의 가르침³⁾에 따르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군자의 복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교적 관념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복수를 테마로 한 서사에서 흔히 개인의 감정보다는 대의에 따른 행동이 복수의 주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의 이데올로기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효와 충 그리고 가족과 국가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복수는 많은 史傳이나 문학 작품 속에서 당연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발상이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군자의 담론이 이루어지는 유교 이념, 그 가운데에서도 ‘효’의 관념과 관련한 복수의 서사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정당한 복수로 상징되는 오자서를 비롯해 간장과 막야의 유복자 및 조씨고아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서사작품들 속에서 어떻게 복수가 형상화 되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제 다루고자 하는 서사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복수를 통해 부친에 대한 효의 도리를 실천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바로 그 점이 이들을 만고에 칭송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겪었을 심리적 갈등이나 고뇌는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미화된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이들에 대한 재조명은 중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유교적 이성이 개인의 감정에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3)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論語·衛靈公》）

II. 복수의 의미와 그 당위성의 근거

먼저 복수의 관념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을 추론하기 위해 복수를 의미하는 글자인 ‘讎’에 대한 내용을 《說文解字》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수’에는 원래 ‘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讎는 應과 같다. 응은 대한다는 것이다. 수는 말로 대하는 것이다. 《시경》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답하지 않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략>

仇[상대]가 讎이다. 구와 수는 원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곁에서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오로지 원수[怨]를 뜻하게 되면서 원수[讎]가 되었다.⁴⁾

이 풀이에 따르면 ‘수’가 원래는 말로서 대꾸한다는 의미였다. 《說文解字》에서 인용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답하지 않는 말이 없다.(無言不讎)”라는 《시경》의 다음 구절은 “내가 받은 도움[德]은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無德不報)”⁵⁾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周王에게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는 내용, 즉 누군가와 마주하는 자리에서 진심과 성의를 다해 대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마주한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도 과연 상대의 모든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讎의 의미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나 언어는 분명 성의 있고 진실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報는 죄를 언도하는 것[論]이니,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報가 된다. <중

4) (讎)猶贖也。應，當也。讎者，以言對之，詩云無言不讎是也。……仇，讎也，仇讎本皆兼善惡言之，後乃專謂怨爲讎矣。〔漢〕許慎撰，〔清〕段玉裁注，《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7，90쪽

5) 《詩經·大雅·抑》

략)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보고하는 것이 되고, 양값음하는 것이 되었다.”⁶⁾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복수는 상대방이 대답하는 말에 대한 평, 혹은 처단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며, 애초에 누군가와 원수가 된다거나 원한을 갚기 위해 복수를 한다는 개념에는 언행과 관련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수의 욕구가 상대방의 언행으로부터 촉발된다는 것은 언행을 삼가야 함을 부단히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과도 그 맥이 이어지며, 또한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得罪’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중국인의 불문율이기도 하다.

讎가 ‘원수’의 의미로 쓰인 예는 《시경》에 이미 보인다.

나를 좋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원수같이 대하는군요,
내 정성은 물리치시니, 팔리지 않는 물건 같은 신세,
예전에 어렵고 궁할 때는 그대와 함께 고생했건만,
이제 겨우 살만하니깐 나를 독벌레처럼 여기네요.⁷⁾

이 시는 지아비의 버림을 받은 여인의 비통함을 읊은 것이다. 시의 앞뒤 내용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곤궁한 살림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고생한 아내가 새로운 여자를 들여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본처는 원수 보듯 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서 쓰인 讎는 명백히 ‘원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변심한 남편이 삶을 같이 해온 조강지처를 대하며 내뱉는 언어나 행위 가성의 있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답하다, 응하다’라는 ‘수’의 의미와 통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6) 報, 論也. 斷獄爲報.引申爲報白, 爲報復.(許慎, 앞의 책, 496쪽)

7) 不我能恤, 反以我爲讎. 既阻我德, 賈用不售. 昔育恐育鞠, 及爾顛覆. 既生既育, 比予于毒.(《詩經·邶風·谷風》)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대응이나 응답’ 정도의 완곡한 의미로 시작된 복수가 어떻게 고대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되면 ‘누구든 복수할 것’이라는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관념⁸⁾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라는 행위의 정당성이었다. 비록 고대 중국이라 해도 사법은 엄연히 존재했기에 만일 불의를 당했다고 해서 개인의 복수가 마냥 허용되었다면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의 성현인 공자는 복수에 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당위성을 인정했다.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하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하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거적을 깔고 방패를 베게 삼아 자며,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같은 세상에 살지 않으며, 시장이나 조정에서 만나게 되면 돌아가서 병기를 가지러 갈 것 없이 곧바로 싸운다.”⁹⁾

또 《예기·곡례》에는 복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8) 복수에 대한 중국인의 보편적 관념을 보여주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춘추좌씨전》 회공 15년(B.C. 645)에서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어찌 오랑캐를 섬기겠는가.(必報讎，寧死事狄)”라고 하였다.([晉] 杜預 注，[唐] 孔穎達 正義，〈春秋左傳正義〉 권14，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384쪽) 또 《사기·자객열전》에서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한다고 했다. 이제 智伯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나는 기필코 원수를 갚고 죽겠다. 이같이 해서 지백에게 보답하면 내 혼백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士爲知己者死，女爲說己者容。今智伯知我，我必爲報讎而死，以報智伯，則吾魂魄不愧矣.)”라고 하였다.(사마천 지음，신동준 옮김，〈사기열전〉，고양：위즈덤하우스，2015，643쪽)
- 9) 子夏問於孔子曰：“居父母之仇，如之何？”夫子曰：“寢苦枕干，不仕，弗與共天下也，遇諸市朝，不反兵而鬪。”(《禮記·檀弓上》)

부친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지 않고,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기 위해 항상 무기를 휴대하여 무기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¹⁰⁾

이 구절에 대해 정현은 ‘부친은 자식에겐 하늘과도 같은 존재이니, 자신의 하늘을 죽인 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산다면, 이것은 효자의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그를 찾아 나서서 그를 죽인 이후에야 멈추게 된다.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의 원수가 자신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를 죽인다.’¹¹⁾라고 주를 달았다. 위 인용문의 ‘집에 돌아가서 무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모나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항상 병장기를 지니고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복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원수를 보게 되면 즉시 죽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인 어짊[仁]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유가의 성현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언급하였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긴 해도, 이쯤 되면 부모형제의 원수를 만나면 즉시 죽인다는 것은 하나의 도덕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경 가운데 하나인 《예기》가 고대 중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절대적 권위와 함께 아주 긴 역사를 통해 대체 불가한 성현으로 추앙받는 공자에 대한 교조적인 믿음이 더해지면서 부모나 형제의 원수를 만나면 ‘즉시 죽인다.’는 일반적인 도덕률을 넘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당위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무기를 지니고 다닐 것을 권하는 이 사실은 야만스럽기까지 하다. 개명현 시대의 도덕적, 법률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는 가공할 만큼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 父之讐弗與共戴天, 兄弟之讐不反兵, 交遊之讐不同國.(정병섭 역, 《禮記集說大全·曲禮上》, 서울: 학고방, 2012, 421쪽)

11) 같은 책, 425~426쪽.

그러나 중국 고대 유가사상에서 인정하는 복수 행위는 혈육이나 군주를 위한 것이라는 특정 범위 내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상에서 논의했던 복수에 대한 당위성과 보편성이 유교가 중시하는 ‘효’의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에 있어서 효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근원적이며 절대적인 덕목이다. 특히 그 지속성은 부모의 생존 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와 대를 이어서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게다가 효의 관념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개인적 윤리로서 家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國의 윤리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유교는 家와 國의 관계를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인륜과 법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유교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忠’을 활용하여 둘의 윤리를 일치시켰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곧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여 효와 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고, 효는 국가권력의 핵심적인 통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家의 윤리가 동일하게 國의 윤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유교가 효의 모범적 주체를 통치계급에 두고, 백성들에 대한 교화의 차원에서 효 윤리의 정치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대 유교의 효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서 자손으로 연결되고, 家의 윤리에서 國의 통치윤리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교적 효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¹²⁾

효와 충의 윤리가 절대적 덕목으로서 동일시되었던 만큼 군주와 친족을 위한 행위가 많은 경우 매우 떳떳하고 당위적인 명분을 가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유가가 이런 관념 아래에서 복수를 중시하긴 하지만, 원칙도 없이 멋대로 구는 혈기와 맹목적 복수는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오

12) 심도희, 《고대 유교의 ‘효’ 사상과 그 특수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3쪽.

히려 이런 행위는 일정한 도덕적 규율에 의해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¹³⁾

그리고 家와 國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모를 위한 행위와 국가가 제정한 법 사이에 필연적으로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무수히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¹⁴⁾ 하지만 효와 관련된 고대 중국의 이러한 사유방식은 복수라는 행위에 대해 타당한 명분을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효가 백행의 근본’이고, 공자도 ‘부형의 복수’를 적극 권장한 이것이 바로 중국인에게 복수의 행위가 명분을 갖게 된 이유라는 것이다.

Ⅲ. 복수의 서사와 가려진 고뇌

중국 고전문학 작품들 가운데 복수와 관련된 서사는 그 소재가 아주 다양하며, 내용 또한 풍부하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복수와 자신을 위한 복수, 그리고 전생의 원한에 대한 복수 등이 있는가 하면, 원혼과 같은 비현실적 존재나 의로운 협사와 같은 인물에 의해 서사의 내용이 한층 흥미진진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친족, 특히 아버지를 위한 복수의 故事는 史傳에 대량으로 기록되었으며, 이것들은 효라는 유교적 윤리에 근간을 둔 것이기에 그 행위는 단순히 원수를 갚는 의미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심지어 사명감을 부여하였다.

13) 리펑페이,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호, 2014, 347쪽.

14) 예를 들면 公羊家は 이렇게 주장한다. 만일 군주가 누군가의 부형을 무고하게 죽었다면 복수할 수 있지만, 만약 군주가 죄를 지은 부형을 법에 의해 처결했다면 복수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그 복수 행위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자식이 아버지의 복수를 갚은 후에 다시 국가의 법률적 제재를 받을 것인가?’라는 논란은 줄곧 존재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유충원의 <駁復仇議>와 한유의 <復仇狀>이다.(같은 논문, 348~354쪽 참조)

그러나 여기에는 효에 입각한 복수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간과한 점들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복수가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혹은 아들이 느꼈을 개인의 고뇌나 갈등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 서사들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은 복수에 있어 효라는 대의명분을 너무나 중요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과연 복수를 행하는 아들들의 심정은 오로지 복수에 불타오르기만 했을지는 다시 짚어볼 문제이다.

1. 伍子胥의 복수와 타당성

젊은 시절 고국인 초나라에서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잃은 오자서가 그 원한을 갚은 이야기는 수천 년 간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서 그를 복수의 화신으로 각인시켰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그의 복수를 군주로부터 무고한 죽음을 당한 아버지를 위한 정당한 복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자서의 부친 伍奢는 초나라 平王 때에 태자 建의 太傅였다. 그런데 少傅 費無忌의 참소로 옥에 갇혔다. 오사의 두 아들이 복수할 것을 염려한 평왕은 오사에게 두 아들을 오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큰 아들 오상은 부친의 부름에 응해도 부친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았다. 그렇지만 부친의 부름을 거역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자서는 부친에게 가려는 형에게 말하였다.

두 아들이 가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갔다가는 아무도 복수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쳐서 그 힘을 빌려 아버지의 치욕을 갚는 것이 낫지 다 같이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¹⁵⁾

15) 二者到，則父子俱死，何益父之死？往而令讎不得報耳。不如奔他國，借力以雪父之恥，俱滅，無爲也。(사마천 지음, 신동준 옮김, 《사기열전》, 96쪽)

결국 오자서는 국외로 도망쳐 훗날 오나라의 힘을 빌려 초나라를 함락 시켰다. 초나라에 들어간 오자서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꺼내 300번 채찍질을 가하여 부형의 원수를 갚는다. 이러한 오자서의 선택을 두고 사마천은 <오자서열전>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일찍이 오자서가 아버지 오사를 좇아 함께 죽었다면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달랐겠는가? 그는 소소한 의[小義]를 버리고 큰 치욕을 씻어 명성을 후세에까지 전하였다.¹⁶⁾

오자서에 대한 사마천의 긍정적인 평가는 부친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은 것[小義]에 있지 않고, 훗날을 도모해 부형의 치욕을 복수한 것[大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은 모든 고초를 참고 견디며 공명을 이루었으며, 그것은 대장부가 아니고서는 해 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마천의 극찬으로 인해 이러한 오자서의 선택은 복수를 위해 기나긴 기다림 역시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인이 마땅히 따르고 배워야 할 전형적인 모습으로 거론된다.

물론 오자서가 복수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과 감내, 그리고 충의 등은 확실히 돋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서사에서 초점을 오자서의 복수에서 돌려 주변 인물에게 맞춰진다면 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먼저 평왕과 비무기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후환이 될 오사의 두 아들을 없애기 위해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부른다. 평왕과 비무기의 이 계약은 두 아들의 효심을 이용한 것이다. 두 아들 역시 그 부름에 호응을 하면 아버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신들 역시 죽임을 당할 것임을 간파했다. 하지만 그것을 간파했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한 부도덕한 자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아들은

16) 向令伍子胥從死俱死，何異螻蟻 棄小義，雪大恥，名垂於後世。(같은 책, 112~113쪽)

부름에 응할지 말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장자인 오상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상황에서의 인간적 고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 역시 그곳으로 갈지라도 부친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친이 살기 위해 나를 불렀는데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원수도 갚지 못하면 결국 세인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¹⁷⁾

사태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오상이었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어진 성품의 오상은 평왕과 비무기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둘째인 오자서는 “우리가 가면 부자가 함께 죽고 말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마저 갚지 못하게 됩니다.”라는 말로 형을 말렸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인 오사는 두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이미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또한 내다보고 있었다. 즉 큰 아들은 사람됨이 어질어 부르면 틀림없이 올 것이고, 둘째 아들은 고집이 세고 모진 데다 능히 굴욕을 견딜 수 있어 장차의 복수를 위해 결코 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예상처럼 두 아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서 그 성격의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수에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보이지 않았던 두 아들의 심리적 갈등과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논의할만한 것은 오자서가 한 때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초나라의 왕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족과 국가, 즉 효와 충을 동일시하였던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 복수가 타당한 명분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¹⁸⁾ 예를 들면 오자서의 가문이 초나라의

17) 我知往終不能全父命。然恨父召我以求生而不往，後不能雪恥，終爲天下笑耳。(같은 책, 93쪽)

18) 윤세순은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민족문화사연구》 51집, 2013)에서 오자서의 부친의 복수를 위한 자식으로서의 처신, 초나라 평왕에 대한 복수, 오나라 왕 부차에 대한 신하로서의 면모, 오나라 공자

世臣이었다는 점, 부자의 윤리는 군신의 의리보다 편중될 수 없다는 점, 오씨 가문이 오나라에 몇 세대를 살았으므로 오자서가 하루아침에 초나라를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오사를 죽인 자는 평왕이지만 평왕에게 오사를 참소하여 맨 처음 화근을 만든 자는 비무기였으니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 등을 들어 복수가 부당하다는 다양한 평들이 존재한다.¹⁹⁾

물론 오자서의 경우는 무고한 부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충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²⁰⁾ 이는 오자서와 친분이 있는 초나라의 대부인 申包胥가 평왕의 시체에 3백 번 매질을 한 것에 대해 “그대의 복수는 너무 심하다. ……일찍이 초평왕의 신하가 되어 북면하며 섬긴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되게 했으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난 일이 있겠는가?”²¹⁾라고 비난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무튼 긴 역사를 두고 인구에 회자되면서 오자서는 부형의 복수를 위해 소의를 버릴 수 있는 결단력과 그 복수를 위해 인내하며 기어코 성공한 실천력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반면 그는 또한 우매한 오나라 왕 부차에게 충간하다가 자결하라는 명을 받고 세상을 떠난 비운의 충신이기도 하다. 이처럼 왕에 대한 복수와 충성이라는 오자서의 양면성은 그를 복수의 화신인 동시에 유교적 가치를 몸소 실행한 지극한 충신으로 승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광에 대한 지원과 협력 등과 관련된 조선 시대 산문 자료를 분석하여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충효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있다.

- 19) 윤세순, 앞의 논문, 210~211쪽 참조.
 20) 이에 대해 《춘추공양전》에서는 오자서의 복수를 찬양하고 나아가 이 행위의 합리성과 그 기본 원칙에 대한 논쟁까지 벌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약 군주가 누군가의 부형을 무고하게 죽였다면 복수할 수 있으나, 만약 군주가 죄를 지은 부형을 법에 의해 처결했다면 복수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리평페이, 앞의 논문, 348쪽)
 21) 子之報復，其以甚乎！吾聞之，……今子故平王之臣，親北面而事之，今至於僂死人，此豈其無天道之極乎！（사마천 지음, 신동준 옮김, 앞의 책, 102~104쪽 참조)

2. 干將 莫耶 유복자의 복수와 필연성

효를 근간으로 한 복수를 떠올릴 때 고대 중국에서 유교적 가치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간장막야 고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삼왕묘>의 이야기이다. 이는 초나라 왕에게 천하제일의 보검을 만들어 바친 名匠 간장과 그의 아내 막야의 이야기이다.

간장은 3년의 기한으로 명검을 만들라는 楚王의 명을 받았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고서야 두 자루의 명검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간장은 자신이 만든 두 자루의 칼 가운데 한 자루를 숨기고 나중에 유복자가 태어나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 후일 장성한 아들은 남산이 보이는 곳 소나무 아래 바위에서 아버지가 숨겨 둔 검을 찾아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왕에게 복수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지만 도리어 쫓겨 다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는 협객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협객 역시 초왕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왕이 찾는 간장과 막야의 아들의 목이 필요했다. 이에 아들은 자신의 목을 베어 초왕에게 바치게 했다. 초왕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아들의 목을 넣어 삶았다. 그러나 삼일 밤낮이 지나도록 전혀 변함이 없었다. 화가 난 초왕은 솥 가까이 다가와 확인해보고자 했다. 협객은 그 틈을 타 초왕의 목을 내리쳐 솥에 넣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목까지 베어 솥에 들어가게 하였다.²²⁾

<삼왕묘>의 이야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부각되는 내용이 다양할

22) 이 이야기는 《法苑珠林》, 《搜神記》, 《列異傳》, 《列士傳》, 《吳越春秋》, 《孝子傳》(《太平御覽》 卷343), 《太平實宇記》 卷105, 《北征記》 등에 기록되어 널리 유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干寶 撰, 《搜神記》, 臺北: 里仁書局, 1984, 128~129쪽 참조) 한편 《吳越春秋》에서는 검의 주조를 명한 왕이 초나라가 아닌 오나라 합려이고, 주조 과정에서도 검의 주재료인 철이 녹지 않자 간장의 아내 막야가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함으로써 천하의 명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곧 복수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 있다.

먼저 소재에 대한 것이다. 이 서사의 여러 가지 소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마도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펼 펼 끊는 가마솥에서 삼일 밤낮을 고아도 유복자의 목이 멀쩡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괴고사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마저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작가가 부친을 위한 아들의 복수심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드러낸 것이고, 독자는 그러한 간절함을 ‘지극한 효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중국의 ‘俠’문화에 대한 것이다. 유복자가 부친의 복수를 할 방법을 찾지 못해 통곡하고 있을 때 협객이 나타나 돕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협’ 문화는 중국 특유의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俠客, 俠士, 義俠 등으로 불리는 ‘협’은 중국의 고유한 개념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협’의 정신은 하나의 신념이자 범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협은 모두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절의를 본위로 한다. 義는 협이 없이 바로서지 않고, 협은 의가 없이는 소용이 없으니, 이를 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夫俠者, 蓋非常之人也. 雖以然諾許人, 必以節義爲本. 義非俠不立, 俠非義不成, 難兼之矣.)”²³⁾라는 언급은 고대 중국에서 협의 존재가 예악이 붕괴되고 권력층의 무자비한 압박으로부터 사회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복선에 대한 것이다. 막야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두 자루의 칼 가운데 한 자루를 왕에게 바치지 않고 숨겼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복선’으로서 후대 변형된 이야기들의 탄생을 촉발시키는 매

23) 李德裕·董誥 等編, 〈豪俠論〉,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7276-7277 쪽.

개체 역할을 한다. 그 복선이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중국문화사에 있어서 복수의 잉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복수’라는 문화코드가 중국의 정신문화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계기가 된다.²⁴⁾ 그리고 복수라는 행위가 단순히 단방향성의 ‘되갚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外化’와 정신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삶의 태도와 인간 정신의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그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²⁵⁾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인 간장의 복수를 수행하는 아들의 마음이다. 복수에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한 처절한 고통은 원함과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정비례하는 관계일 것임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간장과 막야 부부의 아들처럼 유복자의 경우는 어떻게 복수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될지 의구심이 든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수를 한다는 도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父情을 느끼지 못한 부친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복수심이 타오른다는 것이 아무래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비약이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를 낳아주신 부친이라는 천륜의 관계만이 존재할 뿐 어떠한 시간이나 감정도 공유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공멸하는 복수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은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유교의 이데올로기, 즉 부모를 위해 복수를 해야 한다는 효 관념의 교조적 영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는 이 서사에서 이러한 관념과 여러 번 마주한다. 유복자가 쫓겨 복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이를 비관하여 통곡하는 장면, 유복자의 사

24) 장준영, <검은 협객, 푸른 검(劍)의 노래-노신 <주검(鑄劍)>의 ‘복수(復讎)’ 미학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50호, 2013, 250쪽.

25) 같은 논문, 247쪽.

연을 듣고 돕겠다고 나서는 험객, 그리고 삼일 밤낮을 고아도 멀쩡한 유복자의 목 등이 유교의 효 관념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 책에 인용되었다는 것은 유교의 이러한 관념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죽어도 불사해야 할 상황 앞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의 갈등이나 고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3. 〈趙氏孤兒〉의 갈등과 복수

중국문학사의 〈햄릿〉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비참한 역사적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춘추좌씨전》과 《사기》에 실려 있는 〈趙世家〉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되어 元代 잡극, 화극, 현대 장편소설, 현대극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해석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읽혀질 수 있었던 점이 이 이야기가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 올 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²⁶⁾

이 이야기의 시작은 중국 춘추시대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쑤나라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에서 屠岸賈에 의해 조씨 가문이 멸족당한 후 그 주변의 인사들, 즉 의사 鄭嬰을 비롯하여 장군 韓厥과 대부 公孫杵臼가 유복자인 고아를 살려내어 20년 후 복수를 완수한다는 내용이다.

이야기의 주요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가장 먼저 《사기》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

도안고가 독단으로 조씨의 저택인 下宮을 공격해 가족을 절멸시켰으나, 임신 중인 趙朔의 처가 도망쳐 몰래 사내아이를 낳았다. 조삭의 친구 정영과 조삭의 문객 공손저구가 다른 이의 아이를 데리고 산에 숨어두고, 조씨

26) 기군상 외 지음, 강계철 옮김, 《조씨고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31쪽.

의 고아라고 가장한 아이와 공손저구는 함께 살해된다. 목숨을 구한 진짜 조씨고아는 정영과 함께 산에 숨어 살다가 15년 후에 조씨 집안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되고 도안고를 공격해 일족을 멸했다.

조씨고아 趙武가 복수를 하고 난 후, 정영은 자신도 죽어 임무를 완수했음을 공손저구에게 알려야 한다며 자살했다. 조무는 정영을 위해 3년을 服喪했고 토지를 마련해 봄가을에 제사지내기를 대대로 그치지 않았다.²⁷⁾

《사기》의 이 이야기는 《춘추좌씨전》에 기록된 역사사건²⁸⁾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새로운 필사과정은 역사사건을 풍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사건에 많은 감정적 요소와 도덕적 색채를 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색은 기군상의 잡극 〈조씨고아〉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난다. 잡극은 《사기》의 줄거리에서 변함이 없지만, 이들의 신분과 역할에 허구적 가공을 보탬으로써 ‘역사’에 ‘문학성’을 보강시켰다. 먼저 조식의 친구였던 정영은 원곡에서는 의사 신분의 문객으로 복수극의 중심에 있으며, 그 뒤에도 자결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또한 공손저구와 같이 살해된 다른 이의 아이는 원곡에서는 정영의 아이로 대체하여 극적 효과를 고조시켰다.

또한 《사기》와 달리 잡극에서 조씨고아가 도안고의 양자로 양육되었다고 한 것, 도안고가 조씨고아 색출 과정에서 半歲 이하의 영아를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한 것, 조씨 일가가 입은 파멸의 규모를 ‘일족 300명’으로 표현한 것 등은 모두 도안고의 악랄함을 매개로 극적 흥분을 극대화하려는 허구였다.²⁹⁾ 기군상이 시도한 드라마틱한 각색은 고아의 복수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비극적인 미학을 극대화

27) 사마천 지음, 신동준 옮김, 앞의 책, 461~475쪽.

28) 《춘추좌씨전》에 기록된 〈조씨고아〉의 최대 특색은 조씨 멸문의 원인이 조장희라는 여인과 그녀의 남편의 숙부인 조영의 정사에서 발단하고 있으며, 단지 조씨고아는 한결의 도움을 통해 몰수된 조상의 토지를 돌려받는 단순한 수혜자라는 점이다.

29) 김성규, 〈사마천에서 볼테르까지: ‘趙氏孤兒’ 이야기의 進化 略史〉, 《역사교육》 제141집, 2017, 180쪽.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의 결말에 보이는 정영의 자결을 없앤 것도 비극보다 해피엔딩을 선호하게 된 관중의 입맛에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³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작들이 부단히 작가나 연출가에 의해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 개작들 역시 죽음을 불사하는 의리와 복수라는 중국인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비극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기군상의 <조씨고아>가 세계적 비극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 각색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비극의 클라이맥스는 복수로 귀결된다.³¹⁾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은 복수라는 행위에 대한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감정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앞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마다않고 복수를 수행한 간장의 유복자와 마찬가지로 조식의 유복자였던 조씨고아, 즉 조무가 복수의 과정에서 겪었을 내면의 갈등과 고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되짚어가며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조무 역시 태어나면서 부모를 잃었으니, 자연히 자신을 맡아 키워 준 정영을 아버지로 알고 장성하게 된다. 조씨의 일족을 멸한 도안고의 잔악한 행위가 조무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말이다. 심지어 도안고는 조무를 양자로 삼아 부자의 관계로 긴 세월을 보내며, 조무를 깊은 사랑으로 대하며 가족 못지않은 깊은 정을 쌓게 된다. 조무는 복수와는 무관한 긴 시간을 보내며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됨과 동시에 조씨 일가를 멸족한 원수가 자신의 양아버지 도안고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서

30) 같은 논문, 179쪽 참조.

31) 불테르의 <중국고아>에는 조씨고아를 구출해내는 내용만 있을 뿐 조씨고아가 복수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의 TV 등에서 새롭게 각색되어 방영된 '조씨고아' 관련 드라마에서도 고아가 복수를 포기하거나 복수의 내용이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영이나 조씨고아의 인생관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같은 논문, 188~190쪽)

사에서 흔히 등장할 수 있는 설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공인 조씨고아에게 있어 그 사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씨 일가가 도안고에 의해 멸족을 당한 이후 그 집안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정영은 긴 시간 동안 오로지 복수를 이루기 위해 주변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나갔다. 자신이 키운 조씨고아 조무에게 한 개인의 감정보다 복수를 위한 일념을 전가하였다. 조무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때 느낄 안타까움이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걱정하기보다는 조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일깨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사기》와 《조씨고아》 모두에서 조무가 새롭게 알게 된 과거의 비극적 사실로 인해 느꼈을 혼란이나 내면의 갈등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멸족이라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족을 위해 갑자기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 조무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복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조무는 곧바로 수용한다. 조무가 복수를 선택한 데는 어떠한 저지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시 된다. 그의 감정이나 혼란 따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라는 대의, 그로 인한 복수의 임무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기》에서의 기록은 오히려 더 인간적이다. 《사기》에서는 조무와 도안고 사이에 어떠한 가족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조무와 도안고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15년의 세월을 보내고,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복수를 감행한다는 이야기의 전개는 극적인 효과가 떨어지기는 해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덜 비극적이기에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의 전개 역시 우리의 사고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조무는 자연스럽게 키워 준 아버지 정영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감정과 조씨 가문의 큰 은인으로서 느끼는 私恩의 감정을 크게 느끼며, 특히 저승에 가서 먼저 떠난 공손저구에게 임무를 완수했음을 고해야 한다며 자결한 정영을 위해 삼년상을 지내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끊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기군상의 <조씨고아>에서도 친족의 원수를 갚은 후 조무가 비록 자신의 이름을 본래의 성으로 바꾸어 정체성을 되찾지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 준 정영을 극진히 모셨다는 부분은 나온다. 그러나 조씨 일가의 멸족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은 조무가 도안가를 찾아가는 부분에서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급작스러워 읽은 이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養子가 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어쩐 일이나? 날 맞으러 나온 거냐?”

“땃!”

정발이 노기에 차서 화난 얼굴로 도안가를 욕하기 시작했다.

“이 어리석은 도적놈아! 나는 정발도, 도성도 아니다. 너도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있을 거다!”

“오늘 왜 이러느냐? 이십년 간 내가 널 키웠고,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네가 나의 양아들인 도성임을 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태도를 바꾸고 아버지조차 모른다고 하느냐?” 도안가가 어안이 병병해서 말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나는 바로 네가 이십년 전에 죽이려고 했으나, 끝내 죽이지 못한 조씨고아이다. 오늘 원수를 만났으니, 넌 도망갈 생각 말아라.”³²⁾

비록 양부와 양자라는 비혈연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부자간의 정을 나누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다. 자신의 가문을 멸족시킨 원수를 대하는 고아의 반응은 매우 돌발적이고 공격적이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쌓아둔 인정에 대한 일말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을지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전들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으며, 그것을 보는 수많은 관중들의 시각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조씨고아에게 부여된 복수에 대한

32) 기군상 외 지음, 강계철 옮김, 앞의 책, 27쪽.

임무는 중국 고대의 보편관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안고에 대한 조씨고아의 개인적 감정이 설령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을지라도 철저히 외면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에 나온 다양한 버전의 작품들 가운데는 조무가 복수를 포기하는 작품³³⁾들도 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임무가 보편적 관념이었던 중국인의 사고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의 효 이념에 따라 가족이나 국가를 우선시하던 관념에 벗어나 개인의 내적 갈등과 고뇌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진정한 인본주의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IV. 나오는 말

불의에 처한 피해자는 복수심을 갖기 마련이고, 이 감정은 먼 옛날부터 인간 사회에 정서적 유전자로 대를 이어 전해졌다. 또한 고통을 고통으로 되갚고 싶은 격렬한 욕망, 즉 응징 욕구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도덕과 이성이 만든 제약들을 우회하는 길을 끝없이 찾는다.³⁴⁾

부형과 같은 혈육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복수에 관한 고대 중국인의 보편적 관념은 상당히 결연하다는 인상을 준다. 복수에 대한 처연한 다짐과 실행의 사례를 우리는 많은 역사 서사나 문학작품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복수의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효나 충이라는 유가

33) 2003년 중국에서 林兆華와 田沁鑫이 주연한 〈조씨고아〉에서는 조씨고아가 복수를 포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존의 비밀을 알게 된 고아가 복수하지 않고 정신적 혼란 속에 자아를 찾아 떠난다는 결말을 보여 주었다. 이는 조씨고아의 정체성 찾기에 다름 아니며, 현재 자아 확립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중국인의 자화상으로 보였다.(오수경, 〈역사적 기억과 휴머니티로 다시 읽는 중국 고전 희곡, 〈조씨고아〉〉, 《중국문학》 제93집, 2017, 219쪽)

34) 스티브 파인먼 지음, 이재경 옮김, 《복수의 심리학》, 서울: 반니, 2018, 225쪽.

적 가치에 기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완성인 군자에게까지도 마땅히 해야 할 덕목 가운데 복수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많은 문학작품들 속에는 효라는 대의명분 아래 불의를 당한 부모나 가문을 위해 복수를 감행하는 자식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혈육의 정을 단 한 순간도 느껴보지 못했을 유복자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을 법한 최소한의 감정도 고려되지 않는다. 그것은 복수가 지니는 명분과 당위가 고대 중국에서 그토록 신봉하던 유가의 교조적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덕과 이성이 복수를 제약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고대 중국의 경우는 바로 도덕과 이성이 복수의 정당함을 역설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오자서, 간장막야의 유복자, 조씨고아에 대한 재조명은 중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복수에 관한 유교적 이성이 개인의 감정에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적 이성에 가려진 그들의 고뇌와 갈등을 되짚어 봄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기군상 외 지음, 강계철 옮김, 《조씨고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성규, 〈사마천에서 볼테르까지: ‘趙氏孤兒’ 이야기의 進化 略史〉, 《역사교육》 제141집, 2017.
- 리펑페이,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호, 2014.
- 사마천 지음, 신동준 옮김, 《사기열전》,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사마천 지음, 신동준 옮김, 《사기세가》,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스티브 파인먼 지음, 이재경 옮김, 《복수의 심리학》, 서울: 만니, 2018.
- 심도희, 《고대 유교의 ‘효’ 사상과 그 특수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오수경, 〈역사적 기억과 휴머니티로 다시 읽는 중국 고전 희곡, 〈조씨고아〉〉, 《중국문학》 제93집, 2017.
- 윤세순,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 《민족문화사 연구》 51집, 2013.
- 이성규, 〈인간은 왜 복수에 매달릴까〉, <https://www.sciencetimes.co.kr>, 2017.4.10.1.
- 장준영, 〈검은 협객, 푸른 검(劍)의 노래-노신 〈주검鑄劍〉의 ‘복수復讎’ 미학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50호, 2013.
- 정병섭 역, 《禮記集說大全·曲禮上》, 서울: 학고방, 2012
- 《論語》
- 《禮記》
- 《詩經》
- 《太平御覽》
- [晉] 杜預 注, [唐]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권14,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干寶 撰, 《搜神記》, 臺北: 里仁書局, 1984.
- 李德裕、董誥 等編, 《全唐文》, 北京: 中华书局, 1983.
- [漢]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Abstract>

Although mostly focused on blood line, the norms of ancient Chinese on revenge seems very settled. The examples of flabbergasted promises and actions of revenge is shown in many chronicles or literature. I

believe that the reason for excessive generosity on vengeance is because the actions are based on Confucius beliefs such as filial piety or loyalty. Therefore vengeance is considered one of the virtues even for gentlemen of China who are considered to have the complete personality.

In many literature of ancient China, the characters are seen to revenge for their family or parents under the name of piety. Even the bastard sons who have never felt the love from their parents turn into god of vengeance only because they are children. Even the tiniest bit of empathy or emotions of human is left aside.

It is because the reasons and causes of vengeance is based upon the Confucius beliefs that are absolutely believed in ancient China. Therefore, although sometimes morality and reason can be a tool to hinder vengeance, but in ancient China, those reason and morality can be the reason to revenge. The revision of Wuzixu(伍子胥), bastard son of GanJiang·Moye(干將莫耶), or Zhaoshiguer(趙氏孤兒) clearly shows that the Confucius conscience is dominant over personal emotions in deep subconscious of the Chinese. Furthermore, we can take one more step forward to human nature by looking back at their agony and conflicts hidden by their Confucius reasoning.

Key Words : 복수서사(Revenge Narratives), 정당성(Justification), 효(Filial piety), 유교적 신념(Confucius beliefs), 고뇌(Agony), 갈등(Conflicts)

